세계 한인 지도자초청 다과회

당장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비전도 중요합니다. 한국이 동북아 질서 주도나라로 성장 발전 할 것입니다.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동북아 중심국가로 우뚝 서고 변방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반자로서 자주국가의 면모를 갖출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 미·일·중 세 나라에 다녀왔습니다. 물론 일반 외교와 더불어, 당장 급히 해결할 일이 있어서 다녀오면서 새로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대체로 가서 대접을 잘 받은 편입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력이 신장 되서 미·일·중에 가서 그만한 대접을 받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대접을 잘 받은 또 다른 요인이 여러분 덕택입니다.

미·일·중에 갔을 때 한국동포 여러분이 그 나라와 관계가 잘 되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고, 현실화 과정으로 한국 대통령 방문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주었습니다. 눈물겨운 노력을 해주었습니다. 따로 모임을 만들어 격려도 해줬습니다. 고마운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엄청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자산이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막대한 인적자산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치하하고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북한 핵문제와 경제 문제는 차츰 자리잡아 갈 것입니다

한국을 찾으셨습니다. 돈이 될 만한 일이 있어서 오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시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 민족으로서 공감대와 공동체 의식을 확인하러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못난 사람도 대통령이라고 보려고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나라 걱정을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잘되어야 할 텐데, 자부심 생겨야 살고 있는 나라에서 대접을 받을 텐데,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라 걱정을 하실 것입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잘 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저도 시끄러운 줄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은 소식은 혼란스럽고 시끄럽다고 느껴지리라 봅니다. 항상 여러분께 마음속으로 송구하고 편안하고 희망을 갖게 해주고 싶은데 당장 못해 드리고 걱정을 끼쳐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돌이켜 보십시오. 참여정부 들어 걱정거리 있는데 꼭 그렇다고 나빠진 것도 없지 않습니까? 북한 핵문제가 걱정이었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는 과정보다 더 좋은 과정을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결의의 자세가 이런 상황을 조성했다고 믿습니다. 핵문제 잘 가고 있고 잘 가리라 믿습니다. 마음을 모아 봅시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정에서 옥신각신하고 다툼과 시끄러움이 있을 수 있으나 하지만 북핵과 관련해 해결방향이 한발 한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시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위기였습니다. 금융시스템이 고장나 붕괴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행이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안정되어가고 있습니다. SK 글로벌 걱정 많이 했지만 시장원리에 따라 정부가 깊이 개입하지 않고 풀려가고 정리되고 있습니다. 카드채 금융불안도 제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수술하면 위험해진다고 해서 하나씩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자본의 증시유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시가 미래의 기대척도라고 하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물경제가 어려운데 경기의 흐름이고 소비금융을 너무 많이 일으킨데다 상당히 많은 400억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려 경제를 교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불경기는 해소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문제는 불경기가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것을 걱정했습니다. 경기는 시장원리로 회복되지만 성장잠재력 훼손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처했습니다. 이 문제도 옥신각신하고 하루빨리 해결 못해 국민과 국회의 꾸중을 들었지만 채택방도에 대한 다툼은 없었습니다. 국민이 답답할 때 정부의 책임을 묻고 반영하고 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결론은 시끄럽지만 당장 여러 문제는 극복되어 갑니다. 경제와 여타문제들이 큰일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동북아 질서의 중심국가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당장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비전도 중요합니다. 한국이 동북아 질서 주도나라로 성장 발전 할 것입니다.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동북아 중심국가로 우뚝 서고 변방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반자로서 자주국가의 면모를 갖출 것입니다. 우선 동북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떠오를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북아가 빠른 속도로 성장해 10-15년 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블럭이 되고 세계중심의 위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치가 좋습니다. 한국에서 서울이고 서울에서 명동입니다. 해외에서 성공한 여러분을 보면 한국의 우수함과 역량이 자랑스럽습니다. 그 역량의 증거로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정변이 있고 왕조가 교체되면 한국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

다. 일본이 강성하면 일본, 중국, 러시아 어디에 기댈 것인가로 공론이 나눠지고 나라를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강한 국방력과 경제력을 가지면 다시는 이런 수모를 겪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주변상황에 따라 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북아의 대립과 긴장이 조성되면 국민들이 편안하지 않고 누구와 손잡을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북아가 증오와 대결의 질서에서 화해협력 발전의 질서로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이 강해져야 하지만 동북아 질서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 희망을 담아서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얘기했습니다.

경제적인 성장은 쉽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북아 질서를 바꾸는 것인 정말 어렵습니다. 그 시작이 남북문제입니다. 북핵이 해결되고 한반도 긴장이 해소되면 동북아 질서를 받아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긴장과 대립을 빌미로 한 군비경쟁의 질서를 막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기를 원하셔서 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대통령이 힘이 없어 보이고 정당을 지배하지 못하고 검찰과 국정원을 장악하지 못해 대통령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의 국정을 끌고 갈 수 있느냐고 걱정을 합니다. 특히 이런 말씀은 또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언론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보이고 대통령이 속수무책으로 공격받는 모습을 보며 대통령의 약한 모습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지만 이제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정당을 매개로 국회를 지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제와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저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똑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정당과 국회의 질서가 바뀔 것입니다. 바뀐다고 국력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검찰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수십년 동안 반대하고 중립과 독립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독립하니까 수사의 성역이 없어지고 정치권도 공격을 받자 국정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국의 전체적인 국정질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국정을 혼란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도 독립과 중립을 지킬 충분한 자질이 있습니다. 신뢰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질서를 수용하기가 대통령이 저도 힘들지만 과도기적 질서로 이해해 나갑시다. 힘이 아닌 대화와 타협에 의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가운영에 어려운 상황이 오면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을 법대로 행사하겠습니다. 진짜 국가가 혼란스럽고 위험수준이라고 판단되면 국민들이 위임한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이십년 정치를 하면서 원칙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이익 때문에 타협해서 원칙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공권력을 앞세운 정치가 아닙니다. 이제 공권력을 앞세운 정치가 아니라 법과 원칙이 확립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바꿔 나가야겠다는 심정을 헤아려주십시오. 얘기가 길었습니다. 걱정이 많을 텐데 공통적인 걱정은 국가발전을 전망하고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여서 소상히 설명 드렸습니다. 한국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동포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하는 이 대열에 동참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